

청년 맞춤형 해답 '청년이음전주'

전주시, 9개 분야 26개 기관·단체와 운영 협의체 구성... 취업·청년활동 등 지원·협력

전주시가 취업과 주거, 육아 등 청년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올해 개관 예정인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전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밀접한 총 9개 분야 26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운영 협의체를 꾸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이들 기관·단체 가운데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역창업보육협회의 △전북청년허브센터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캠틱종합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주요 9개 기관·단체들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갈수록 심화·복합화되고 있는 청년문제 해소 및 청년소통·활동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청년문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청년취업과 창업, 금융, 주거, 문화, 예술, 육아 등 청년 관련 9개 분야의 협약기관·단체들은 청년이음전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 실무



전주시는 올해 개관 예정인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전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밀접한 총 9개 분야 26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운영 협의체를 꾸렸다.

회의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청년이음전주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26명의 실무위원은 청년이음전주와 연계한 분야별 협업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청년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소통공간의 기능과 공간구성, 명칭제정 등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운영될 전주시 청년센터의 명칭을 '청년이음전주'로 결정했다.

청년이음전주는 청년과 청년과 기관, 청년과 행정 등 지역 내 다양한 연결망 속에서 청년 맞춤형 해

답으로 이어주는 플랫폼공간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참여·연대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이음전주 운영으로, 청년들에게 체계적·통합적인 정책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조준배 지역재생 총괄계획가와 이병섭 (주)에코스ENC 대표 등 2명에게 주거복지 발전 유공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주시 주거복지 유공자에 감사패

조준배 지역재생 총괄계획가·이병섭 에코스ENC 대표에 전달

전주시가 주거복지를 위해 힘쓴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조준배 지역재생 총괄계획가와 이병섭 (주)에코스ENC 대표 등 2명에게 주거복지 발전 유공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진도시건축연구소 본부장인 조준배 지역재생 총괄계획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역재생의 비전·방향 설정 및 추진 전략·로드맵을 제시하며 전주시 주거정책과 전주시 지역재생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탤었다.

태양광 설치 지원(4가구/1600만 원 상당) △아동가구 공부방 지원(4가구/1000만 원 상당) △보육금 지원사업 후원(1000만 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왔다.

전주시 주거복지와 관계자는 "전주에 대한 사랑과 주거환경에 대한 깊은 안목으로 전주시 지역재생 사업을 추진해 준 조준배 지역재생 총괄계획가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주거를 통한 따뜻한 복지의 모범을 보여준 (주)에코스ENC 이병섭 대표에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참가자 모집

전주시보건소, 선착순 100명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로 건강 챙기세요."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약 2주 동안 모바일 헬스케어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밴드를 활용해 건강·영양·운동 등 영역별 전문가가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 등 3회만 보건소를 방문하면 돼 시간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참가자들에게는 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 연동 스마트밴드가 지급된다. 분야별 맞춤형 상담과 주 1회 건강정보가 제공되고, 건강 습관 개선을 위한 각종 미션도 준비돼 있다.

만 19세 이상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고혈압·당뇨·고지혈

증 질환자와 약물 복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는 비 질환자 중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수치 등 5가지 건강위험요인을 많이 보유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수칙 강화 기간에도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1:1 맞춤형 상담 등을 중단 없이 이어왔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평소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를 활용하면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17대 추가 도입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기환경 개선 기대

전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17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로서 전주시내버스 노선을 오가는 친환경 수소시내버스는 기존 15대를 포함해 32대로 늘어났게 됐다.

친환경 수소시내버스는 운행 시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오로지 물만 배출하면서 다량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버스 1대가 1km 주행 시 4.86kg의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소버스 1대가 1년을 주행하면 성인 약 76명이 1년 동안 마시는 공기가 정화되는 셈이다.

친환경 수소시내버스는 차내의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승차감이 좋고, 도입차량 모두 저상버스여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18대의 친환경 수소시내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수소사업 법도시'로 선정됐으며, 이후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시내버스를 도입해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내연기관 없이 전기로 움직이는 수소시내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아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추가 도입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정

김승수 전주시장, 11명 운전사에 표창장 전달

전주시가 평소 안전한 운전습관과 친절함 응대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온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2022년 상반기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로 선정된 선진여객 범상기 기사 등 11명의 버스 운전사에게 표창장을 줬다.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는 △범상기 △오주현 △이성호(이상 선진여객) △김봉관(제일여객) △고동진 △반형근 △정준호(호남고속) △백행준(시민여객) 등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내

버스 시민모니터단과 시민 제보를 통한 추천 및 친절·안전기사 선정위원회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친절·안전기사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사들은 소속 버스회사로부터 각각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며, 명찰과 함께 엠블럼 패치도 받는다. 또, 표창장로부터 5년간 전주시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연말에 진행되는 2022년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친절함 서비스



를 제공해온 총 210명의 기사를 친절·안전기사로 선정해 노고를 격려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정은 타의 모범이 되는 버스 운전원에 대

해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가 정착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매주 토요일 책기둥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전주시, 11월까지 책놀이·인형극 등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청 책기둥도서관에서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 상상력도 키울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책놀이 △인형극 △동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책놀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연기법을 활용해 실감나게 그

림책을 읽어주는 책놀이 전문 강사와 함께 △이면지로 놀아봐 △물풍선을 옮겨라 △땅따먹기 훈민정음 △무지개꽃 만들기 등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동화나래연구소 동극단의 재미있는 동극 및 인형극은 8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다. 동화나래연구소 동극단은 지난 2015년부터 유아교육·동화구연 등으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



모든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다.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 또는 책기둥도서관(063-230-1845)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4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살균·소독 강화

전주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악취 및 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2일까지 7만3000여 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체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을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여름철이 되면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쉽게 부패하는 데다 수도전이 설치되지 않은 원룸 밀집지역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세척이 잘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악취 및 해충 발생의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살균·소독제와 분무기를 각 수거업체에 지원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마다 살균·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룸 밀집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전용 세척차량을 별도로 운행해 세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살균·소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자율적으로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 관리 안내 및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소독 실시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음식물 수거 후에는 수거용기를 자율적으로 세척 관리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